

시신기증을 경험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

권찬양¹, 최나래¹, 이민영¹, 신강재², 손현준¹, 길영천¹

¹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²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A Phenomenological Study for Bereaved Families Who Experienced Body Donation

Chan-Yang Kwon¹, Na-Rae Choi¹, Min-Young Lee¹, Kang-Jae Shin²,
Hyun-Joon Sohn¹, Young-Chun Gil¹

¹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Anatomy and Cell Biolog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bstract : Since there is no research on bereaved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the body donation process in South Korea, this study phenomenologically analyzed the experiences of 10 bereaved families who donated their family body t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se families revealed that although they did not initially intend to donate the remains of their loved ones, their decision was influenced by the deceased's persistent persuasion and their own religious and value-based beliefs. During the donation process, they were taken aback by unexpected questions about the condition of the donor's body, felt inconvenienced as the body handover process coincided with the funeral, and expressed a sense of emptiness as the donation process concluded in an instant. After the donation was completed, the bereaved family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donate their own body along with the donor's, wanting to commemorate the donor's sacrifice and dedication with many others. In order to enable those who have pledged to donate their bodies to actually donate their bod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ducate, promote, and provide guidance to bereaved families and each university that has the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on donation. Additionally, an integrated body donation management system need to be established.

Keywords : Cadaver, Body donation, Bereaved family, Bereaved family interview, Qualitative analysis

서 론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October 16, 2023; **Revised:** November 15, 2023;

Accepted: November 23, 2023

Correspondence to: 길영천(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mail: gilyc@chungbuk.ac.kr

시신기증이란 당사자의 유언 또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죽은 후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된 시신은 해부학교육에 있어 귀한 자원으로 각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은 해부 및 관찰을 통해 인체의 기능과 형태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교육할 수 있고 인체구조의 형태적 변이나 이와 관련된 임상 해

부학적 연구를 수행하며 의학 발전에 임할 수 있다[1].

그러나 현재 국내의 실제 시신기증비율(이하 시신기증률)은 매우 저조하다. Hwang 등[2]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10개 의과대학의 기증 예정인 중 실제 인수된 시신의 비율이 0.1%라고 보고하였고, Kang 등[3]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등록된 기증 예정인 중 실제 기증은 8.9%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역적 특성 및 여러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기증률은 기증 예정인 10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이렇듯 낮은 시신기증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때 유가족이 가족의 시신기증에 동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이외 다른 동양 문화권 국가에서 이뤄진 연구를 보면 기증 예정인은 유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기증 서약 후 이를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실제 기증과정 중 유가족의 반대로 철회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4-7].

현재 국내 시신기증절차는 기증 서약으로, 시신기증을 희망하는 자(이하 기증 예정인)가 기증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에서 사후 시신기증을 하겠다는 서약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후 기증 예정인의 사망이 임박하거나 사망하면 서약한 의과대학에 사실을 알리고 시신은 장례와 함께 해부학교실로 인도되어 교육 및 연구에 쓰이게 된다[8].

현재 우리나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9]. 물론 시신기증에 대한 고인의 유언이나 서면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의과대학에서는 기증 예정인의 사망일을 알 수 없고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시신을 인도해 올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시신에 대한 결정권은 유가족에게 있고 기증 예정인이 생전 시신기증 서약을 했다 할지라도 유가족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신기증은 철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시신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기증 예정인의 서약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가족들에게 시신기증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구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기증 서약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증 예정인이 실제 기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있는 유가족이 기증인의 의지를 따를 수 있도록 대학과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시신기증을 경험한 유가족 대상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고 시신기증이라는 경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또한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가족의 시신기증을 경험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시신기증에 동의하는 것부터 실제 기증절차를

이행하는 전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시신기증에 대한 유가족의 심리와 고충을 이해하며 그 민감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신을 기증한 유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시신기증의 경험과 그에 대한 고충을 탐구하고자 한 질적 연구로,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10]을 토대로 하였다. 이는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녹취하여 공통되게 나타나는 의미 있는 문장(sentence)이나 구(phrase)를 추출하고 이를 주제(category)로 묶어 시신기증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 모집은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하였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기증한 유가족 중 누락자료를 제외한 780가정에 본 연구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후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유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과 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해 온 충북대학교 시신기증 담당자를 통해 3가정의 응답을 받았다. 이후 연구대상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7가정의 응답을 추가로 받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유가족은 총 10가정이며 기증인과 유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신기증 등록서류 및 사망진단서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Table 1).

3. 연구 방법

1) 유가족 인터뷰

인터뷰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유가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카페 또는 대학의 휴게실에서 하였으며 한 가정당 약 60분 동안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유가족에게 연구동의서를 배부하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 진행은 연구자가 시신기증 당시의 경험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요 질문을 제시하여 연구 방향이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인터뷰 동안 연구자는 유가족과의 라포를 형성함과 동시에 충분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는 포화 시

Table 1. Information of interviewees

No	Interviewee	Gender	Relation to donor	Religion	Age	Gender of donor	Donor's age at time of body donation	Year of body donation
1	Y*H	Male	Son	Christian	66	Male	92	2011
2	C*H	Female	Spouse	Buddhism	69	Male	60	2012
3	L*W	Male	Son	Christian	35	Male	55	2012
4	K*H	Male	Son	Christian	62	Male	86	2013
5	J*H	Male	Son	Christian	62	Female	82	2012
6	M*J	Male	Son	Christian	62	Male	86	2017
7	M*J	Female	Daughter	Catholic	57	Male	76	2018
8	J*S	Female	Daughter	Catholic	67	Male	91	2022
9	S*Y	Male	Brother	Christian	58	Male	67	2022
10	P*K	Male	Son	Catholic	60	Male	85	2022
	R*C	Male	Son	Christian	66	Male	94	2023

Table 2. Key questions

1) What made you agree to donate your family's body? - Who first suggested body donation? - What was your family's reaction at the time? - Was there any conflict?
2) Your experience during the actual donation process after the donor's death. - Was the body donation process smooth? - How did the bereaved family feel during the body donation process? - Were there any unforeseen circumstances during the body donation process?
3) What did you feel through the body donation process? - Has there been a change in awareness about body donation? - Do you agree to another donation? (your own or someone else's)
4)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reaved family who went through the entire process, Do you have any desires or wishes?

점까지 진행하였다.

모든 개별 인터뷰는 제1 연구자가 수행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각 인터뷰가 끝난 직후 녹음파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기록하였다. 인터뷰 당시 제시한 주요 질문은 Table 2와 같다.

4. 통계 분석

기증인과 유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는 질적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N Vivo, version 14 (QSR international, Australia)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에 따라 진행되었다[10]. 첫 번째, 연구진은 녹음파일 기록과 인터뷰 당시 작성한 노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관찰하여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두 번

째, 파악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대상자들이 진술한 대화 중 공통되게 나타나는 문장(sentence)이나 구(phrase)를 추출하여 이를 범주(category)로 묶어 구조화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세 번째, 구조화된 결과는 대상자들에게 재확인함으로써 이야기한 주제와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연구진들의 재검토를 통해 원자료와의 맥락이 멀어지지 않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범주(category)와 하위범주(subcategory)를 분류하였다.

결 과

1. 기증인과 유가족의 일반적 특성

기증인과 유가족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s 3, 4와 같

Table 3. Profile of body donors

Characteristics	Donor [†] (N = 11)	
	Number	(%)
Age of death		
50~60	2	18.2
61~70	1	9.1
71~80	1	9.1
81~90	4	36.4
91 or above	3	27.3
Sex		
Female	1	9.1
Male	10	90.9
Marital status		
Single	1	9.1
Married	6	54.5
Widowed	4	36.4
From donation pledges to donations		
Within 1 year	2	18.2
Over 1 year	9	81.8
Place of death		
Home	2	18.2
Hospital	4	36.4
Welfare facility	4	36.4
DOA	1	9.1
Body donation proposal		
Donor	10	90.9
Family	1	9.1

[†]One bereaved family member interviewed had both parents donate their bodies. So the number of donors was calculated to be 11.

다. 기증인의 나이 분포는 80대(36.4%)가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이 90.9% (10명)로 여성과 비교하여 높았다. 기증인 1명을 제외한 모두가 기혼자였으며(90.9%), 시신기증 서약 시점으로부터 실제 기증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가정이 81.8% (9명)였다. 사망 장소는 병원과 요양 시설이 각각 36.4% (4명)였으며, 기증인 중 90.9% (10명)가 먼저 가족들에게 본인의 사후 시신기증을 제안하였다(Table 3).

인터뷰 대상자의 나이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70.0%), 기증 당시 나이는 50대 이상이 90.9% (9명)였다. 실제 기증에 동의한 유가족의 대표는 남성이 70.0% (7명)였으며, 기증인과의 관계는 80.0% (8명)가 부모-자녀 관계였다. 유가족의 종교는 기독교가 60.0% (6명)로 가장 많았다 (Table 4).

2. 인터뷰 결과

인터뷰 원자료에서 유가족의 시신기증 경험 중 공통되게

Table 4. Participant profile : bereaved family

Characteristics	Bereaved family (N = 10)	
	Number	(%)
Age		
30~40	1	10.0
41~50	0	-
51~60	2	20.0
61 or above	7	70.0
Age at time of donation		
20~30	1	10.0
31~40	0	-
41~50	0	-
51 or above	9	90.0
Sex		
Female	3	30.0
Male	7	70.0
Relationship of donor		
Children	8	80.0
Spouse	1	10.0
Sibling	1	10.0
Religion		
Buddhism	1	10.0
Catholic	3	30.0
Christian	6	60.0

진술하는 내용을 구조화할 때 4개의 주요범주(category)와 10개의 하위범주(subcategory)가 도출되었다(Table 5).

1) 가족의 시신기증에 동의하게 된 과정:
부정과 설득 그리고 수용

① 시신기증은 나와 먼 이야기(부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90.9%는 시신기증에 대해 들 어본 적은 있으나 내 가족이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뭘 이런 걸(시신기증을) 생각했냐고 얘기할 수도 없죠”

“부모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② 기증인의 강한 의지(설득)

기증인 중 90.9%가 생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 예정절차를 밟았고, 81.8%의 기증인이 오랜 시간 가족들을 설

Table 5.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derived from interview data to bereaved family

Question	1) What made you agree to donate your family's body?
Category	Denial, persuasion and acceptance.
Subcategory	① Body donation is a distant story from me. ② Donor's strong will. ③ The body returns to dust.
Question	2) Your experience during the actual donation process after the donor's death.
Category	Urgency, confusion and discomfort.
Subcategory	① It's over in an instant. ② It is inconvenient because it takes place at the same time as the funeral. ③ Receive unexpected guidance.
Question	3) What did you feel through the body donation process?
Category	Empathy and participation.
Subcategory	① Learn from donors. ② I also want to donate my body.
Question	4)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reaved family who went through the entire process, Do you have any desires or wishes?
Category	Contribution and commemoration.
Subcategory	① We hope this will help advance medical science. ② We want to further honor the dedication of our donors.

득하였다.

“아버님이 그 전부터 시신기증한다고 했었어요. 그게 오래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유언으로 하신 거죠. 아버님이 대학에 가서 (기증 예정) 서류를 제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식들한테 주시더라고요.”

③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수용)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90.0%는 종교, 가치관 등의 이유로 사후 시신기증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내 몸을 가지고 해부를 하다가 뭔가 좀 좋은 것을 발견해서 기여하고 싶은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시체가 고장나면 너희들 시체 뜯어봐라 하고 봤는데 이 시신을 그냥 묻는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시신을 묻는다는 게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기묘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그냥 버리다니, 그냥 썩게 두다니”

2) 기증인의 사후 시신 인도의 경험:

급함, 당황함 그리고 불편함

① 갑작스러운 연락(급함)

기증인 사망 후 대상자들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로 소식을 전했고 장례가 진행됨과 동시에 기증절차가

시작되었다. 대상자들은 시신기증에 동의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기증인의 시신 인도 절차는 미처 대비할 수 없이 빠르다고 느꼈다.

“발인 전날이었나 전전날이었나 (해부학교실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굉장히 급하게 연락이 온다 생각했구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리 연락을 주시는 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는 굉장히 급하게 연락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었고”

② 예상치 못한 안내(당황함)

기증 서약에서 사망까지 1년 이상 걸린 경우가 81.8%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시신기증 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선행조건에 대해 알지 못해 당황하였다.

“그런데 이제 (기증할 수 없는 시신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창이 있다든가, 어디가 몸이 상처가 있다든가, 몸무게가 모자라든가, 너무 뚱뚱하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③ 장례식 중에 진행되는 불편함(불편함)

기증인의 사후 시신기증절차는 장례와 동시에 이루어져 유가족들은 가족의 사망과 시신기증의 부담을 동시에 느꼈다.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의 80%가 직계자녀이자 선 순위

유가족으로 이들은 가족을 대표하여 추모하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시신기증절차에 응해야 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불편하여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게 사실 제가 (유가족 동의) 사인을 했잖아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하고서도 그런 (시신 해부 및 연구) 설명을 막상 들으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 사인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기증서(사망 당시)를 작성하는 그 시간이 참 애매하더라고 그 시간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조문객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내가 조문객을 못 받고 여기 (서류 작성하는 데에) 잡혀 있으니까 죄송하더라고요.”

3) 시신기증 후의 감정: 공감과 참여

① 기증인을 통해 배움(공감)

시신기증은 기증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다. 유가족들은 기증인의 시신기증을 지켜보며 값지고 귀한 일임을 실감한다.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교회에서 아직 이런(시신기증의)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을 거기다 젊은 사람들에겐 이렇게 전하는구나. 젊은 우리 후배들한테 길을 여는, 이걸 세상 최고 아버지의 뜻이예요.”

② 시신기증을 희망함(참여)

시신기증절차를 경험한 유가족들 중 80.0%는 기증인과 같이 본인의 사후 시신기증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배우자를 따라 시신기증을 한 사례부터 부모님의 시신기증을 경험한 후 자녀들이 기증 서약을 하는 사례 등 다양한 방법의 선순환이 이어졌다.

“저희 아버님은 시신기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는데, 어머니 (기증절차)를 보시고 난 다음에 아버님도 그 영향을 받으셨는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셔서 아버님도 (기증 서약을) 하셨습니다. 네 엄마를 보니까 그거 참 좋은 일 같다. 나도 그렇게 해다오. 하셔서 마지막에 가시는데도 정신이 깨끗하셨는데도 다시 여쭙보니까 원하신다고 하셔서 아버님도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 따라) 시신기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걸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할아버지가 이미 그렇게(시신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충격은 안 받지 않겠나 싶어(웃음).”

4) 유가족의 바람: 공헌과 추모

①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람(공헌)

기증인의 기증 서약으로부터 사망까지 1년 이상 걸린 경우가 81.8%임을 감안할 때 기증인과 유가족 모두 시신기증이 의학 발전에 도움 되기를 바라며 기증의 의미를 깊게 탐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 이제 아버님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시신기증이라도 해서 국가에 이런 거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꼭 하셨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육체는 다 땅에 묻히고 화장하고 하면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 공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내 몸이라도 후세를 위해서 기꺼이 (기증)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② 기증인의 헌신을 더욱 기리고 싶음(추모)

유가족 중 80%는 기증인을 의과대학 내 수목장이나 돌탑과 같은 기념물에 안치하여 오래도록 기억하고 추모하길 원하였다.

“시신기증 분들의 기념 식수를 해서 수목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를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돌탑이 있어요. 이 돌탑에다가 (시신 화장 후) 재를 버리고 물을 뿌려요. 그리고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돌을 허물고, 그럼 밑바닥에 재가 모여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재를 가져다가 장미밭에 또 뿌려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름을 주는 거죠. 그럼 유가족은 와서 그 장미를 보고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고 찰

국내 시신기증절차를 경험한 유가족의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기증을 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기증 당시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유가족들이 가족의 시신기증에 동의하게 된 과정에서 처음 시신기증에 대해 들었을 때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Molzahn 등[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죽음과 관련된 주

제는 가족 내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Wallace 등[11] 홍콩에서도 시신기증에 대한 기증 예정인과 유가족 간의 갈등이 매우 크며 이에 시신기증 서약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볼 때 유가족에게 시신기증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증인의 81.8%는 유가족이 시신기증에 동의하기까지 오랜 시간 설득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선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과대학은 기증 예정인의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해 시신기증에 대한 유가족 설득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증 서약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서약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별 시신기증을 및 시신기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각도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가족 중 90.0%는 종교 및 가치관 등의 이유로 시신기증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시신기증 활성화에 영향을 준 요인에서 전통적 유교관의 변화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꼽았던 Lee [12]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시신기증인 중 기독교가 60%라고 보고한 Choi 등[13]의 연구에서 종교가 시신기증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다소 어려워 추후 국내 시신기증을 경험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교, 장례, 죽음에 대한 가치관 등 시신기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가족들은 시신 인도의 경험에 대해 기증할 수 시신의 조건 등을 듣고 당황스러웠으며 기증과 장례가 동시에 진행되어 불편하였고 진행 과정이 매우 급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의과대학은 시신 인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증 서약부터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기까지 시신기증에 대한 안내가 유가족에게 전달되었는지, 유가족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실제 인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기증사례부터 성공적인 해부 연구 결과 등을 책자로 만들어 배부한다면 기증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신기증안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인데 기증 예정인과 유가족이 스마트폰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가입하면 기증 예정대학의 안내정보를 볼 수 있고 가입된 정보를 통해 기증인의 사망이 임박하면 유가족이 이를 체크, 알람으로 다음 해야 할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관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증인과 유가족의 기본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사망 정보 누락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기증 예정인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의 개발은 이전부터 제안해온 바[14-16],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효성을 거칠지 한 단계 나아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가족의 80%가 직계자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가족이 시신기증절차가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인사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14] 시신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신기증 후 유가족들은 기증인의 뜻에 공감하며 오래도록 추모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이에 여러 의과대학은 납골시설 설치와 추모 행사 등으로 기증인과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또한 해부실습 전 위령제와 해부실습 후 추모제를 유가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의과대학 내 납골당을 설치하여 유골함을 모시고 기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는 일회성이고 봉안당과 같은 납골시설은 건물 내 시설로 자리하고 있어 대학에서 주체적으로 추모한다는 느낌을 주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가능하다면 추후 의과대학에 기증인들을 위한 수목장이나 기념비 등을 세워 유가족과 학생들, 그리고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신기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추모 시설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가족의 시신기증을 경험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시신기증에 동의하는 것부터 실제 기증절차를 이행하는 전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시신기증의 최종결정권을 가진 유가족의 고충을 이해함으로써 시신기증 이행과정에서 유가족에 필요한 인식의 제고 방안과 기증안내에 대한 질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신기증률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1. Champney TH. A bioethos for bodies: Respecting a priceless Resource. *Anat Sci Educ.* 2019;12:432-4.
2. Hwang SJ, Lee EY, Heo YD, Hurh SR, Sohn HJ.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strant of the body donation program in Medical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n J Phys Anthropol.* 2012;25:87-94. Korean.
3. Kang WS, Kim J, Yoon S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body donation program database at Jeju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Anat Biol Anthropol.* 2021;34:31-7. Korean.
4. Molzahn AE, Starzomski R, McDonald M, O'Loughlin C. Chinese Canadian beliefs toward organ donatio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05;15:82-98.

5. Qiu X, Sit JW, Koo FK. The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on family caregivers of stroke survivors: A qualitative study. *J Clin Nurs*. 2018;27:e309-19.
6. Shek DTL. Chinese family research: puzzles, progress, paradigms, and policy implications. *J Fam Issues*. 2006;27:275-84.
7. Wu AMS. Discussion of posthumous organ donation in Chinese families. *Psychol Health Med*. 2008;13:48-54.
8.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Accessed September 30, 2023) <https://www.anatomy.re.kr>. Korean.
9.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ccessed September 30, 2023) <https://www.law.go.kr>. Korean.
10.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48-71.
11. Wallace CHC, Sun OC, Adrienne LYW, Pasu KLN. Understanding family involvement in body donation in Hong Kong: A qualitative study of registered donors and bereaved family members. *Health Soc Care Community*. 2020;28:270-8.
12. Lee YI. Database linkage study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cadaver donors. *Korean J Phys Anthropol*. 2003;16:205-11. Korean.
13. Choi SH, Han EH, Chai OH, Kim HT, Song C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adaver donors - one hundred ten cadaver donors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Korean J Phys Anthropol*. 2009;22:195-203. Korean.
14. Song HD, Kim SH, Kim KH, Ku JH.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funeral culture among the elderly. *J Digit Converg*. 2022;20:671-80. Korean.
15. Park JT, Jang Y, Park MS, Pae C, Park J, Hu KS, et al. The trend of body donation for education based on Korean social and religious culture. *Anat Sci Educ*. 2011;4:33-8. Korean.
16. Kwon CY, Shon HJ, Gil YC. Characteristics of cadavor donors donated to Medical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 14-year demographic analysis. *Anat Biol Anthropol*. 2023;2:59-66. Korean.

간추림 : 국내 시신기증절차를 경험한 유가족의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기증을 한 유가족 10가정을 대상으로 기증 당시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내 가족의 시신을 기증하게 될 줄 몰랐다고 답하였으며 기증인의 오랜 설득에 동의하였고 유가족들의 종교 및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다. 기증절차를 이행하는 당시에는 기증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였고 시신 인도 절차와 장례가 겹쳐져 불편하였으며 기증절차가 순식간에 끝나서 허무하였다고 답하였다. 납골당 안치 후 유가족들은 기증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사람들이 함께 기증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지원이 있기를 바랐으며, 본인 또한 이러한 뜻을 기리기 위해 본인의 시신을 기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전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충청북도의 시신기증 서약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에 올라있음을 알 수 있으나, 향후 서약한 기증 예정인이 실제 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증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에게 기증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시신기증 홍보 및 안내방안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신기증데이터의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찾아보기 낱말 : 해부용 시신, 시신기증, 유가족, 유가족 면담, 정성 분석